

결 정

2018 - 300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2.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3.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12월 21일자 「故종현 여성팬 자살 기도...“오빠 따라갈 거야”」 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onhapnews.co.kr) 12월 21일자 「故 샤이니 종현 애도 물결속 인도네시아 여성팬 자살 기도」 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2월 21일자 「샤이니 종현 죽음에...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팬 자살 기도」 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21일자 「"종현 오빠, 곧 따라갈거야" 인도네시아 여성팬 자살 기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 등 4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일간스포츠' (Daily Sports). The main headline is 'SM "故종현 외롭지 않게 보냈다...음악과 열정 영원"' (SM "I sent the late Jonghyun so he wouldn't be lonely... music and passion forever"). Below the headline, there are several sub-headlines and a list of related news items. One item is highlighted in red: '故종현 여성팬 자살 기도.. "오빠 따라갈 거야"' (Late Jonghyun female fan suicide attempt.. "I'll follow my oppa"). The page also features an 'EXCLUSIVE' section with news about Kim Jung-hyun and Kim Jin-kyung, and a 'HOT PHOTO' section with images of celebrities.

<캡처시각 17. 12. 21. 20:07>

(일간스포츠)= 『故 샤이니 종현 애도 물결속 인도네시아 여성팬 자살 기도

[연합] 입력 2017.12.21 10:30



샤이니 종현 사망에 인니 여성팬 자살 기도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과원 = 샤이니 멤버 종현(27·본명 김종현)의 죽음을 애도하던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 팬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트리뷴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샤이니 팬 데비는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영어와 한글로 "더는 견딜 수 없다. 엄마, 아빠, 종현 오빠, 곧 따라갈 거야. 나를 기다려줘"라고 썼다.

그는 이에 앞서 "부모님에 이어 아이돌까지 잃은 이상 삶을 포기해야 할까"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지 케이팝 팬클럽 회원들에 따르면 그 직후 데비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19일 낮에야 의식을 회복한 데비는 자살을 기도한 것을 후회하며 자신을 걱정해 준 동료 팬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힌 뒤 트위터 계정을 폐쇄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밖에도 종현의 죽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하던 여성 팬이 탈진해 쓰러지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종현에 대한 비방성 게시글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는 이들이 생겨나자 현지 팬클럽 회원들은 전자정보거래법(ITE)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법적 다툼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샤이니와 종현의 팬들은 미국과 러시아, 칠레 등 여타 국가에서도 현지 한국 대사관 벽면에 고인의 사진과 애도 메시지를 붙이고 촛불 추모식을 진행하며 슬픔을 나누고 있다.

종현은 지난 18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hwangch@yna.co.kr」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223353&ctg=13&tm=i_b

(연합뉴스)= 『故 샤이니 종현 애도 물결속 인도네시아 여성팬 자살 기도

송고시간 | 2017/12/21 10:27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과원 = 샤이니 멤버 종현(27·본명 김종현)의 죽음을 애도하던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 팬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트리뷴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샤이니 팬 데비는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영어와 한글로 "더는 견딜 수 없다. 엄마, 아빠, 종현 오빠, 곧 따라갈 거야. 나를 기다려줘"라고 썼다.

그는 이에 앞서 "부모님에 이어 아이돌까지 잃은 이상 삶을 포기해야 할까"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지 케이팝 팬클럽 회원들에 따르면 그 직후 데비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19일 낮에야 의식을 회복한 데비는 자살을 기도한 것을 후회하며 자신을 걱정해 준 동료 팬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힌 뒤 트위터 계정을 폐쇄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밖에도 종현의 죽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하던 여성 팬이 탈진해 쓰러지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종현에 대한 비방성 게시글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는 이들이 생겨나자 현지 팬클럽 회원들은 전자정보거래법(ITE)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법적 다툼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샤이니와 종현의 팬들은 미국과 러시아, 칠레 등 여타 국가에서도 현지 한국 대사관 벽면에 고인의 사진과 애도 메시지를 붙이고 촛불 추모식을 진행하며 슬픔을 나누고 있다.



샤이니 종현 사망에 인니 여성팬 자살 기도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샤이니 멤버 종현(27·본명 김종현)의 죽음을 애도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트위터에 남긴 글. 2017.12.21 [트리뷴뉴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종현은 지난 18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hwangch@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1/0200000000AKR20171221062500104.HTML?input=1195m>>

(조선닷컴)= 『샤이니 종현 죽음에...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팬 자살 기도

입력 : 2017.12.21. 11:26

안별 기자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27)의 죽음을 슬퍼하던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팬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해 논란이 일었다.



/트위터 캡처

21일(현지 시각) 트리뷴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샤이니 팬인 데비는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더는 견딜 수 없다. 엄마, 아빠, 종현 오빠, 곧 따라갈 거야. 나를 기다려줘"라는 글을 게재했다. 데비는 앞서 "부모님에 이어 아이돌까지 잃은 이상 삶을 포기해야 할까"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데비는 글을 게재한 직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후 의식을 회복한 데비는 "자살을 기도한 것을 후회하고 나를 걱정해 준 동료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한 뒤 트위터 계정을 폐쇄했다.

현지 매체는 "이 밖에도 종현의 죽음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하던 여성 팬이 탈진해 쓰러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샤이니와 종현의 팬들은 미국·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 벽면에 고인의 사진과 애도 메시지를 붙이는 등 촛불 추모식을 진행하는 중이다.

종현은 지난 18일 오후 6시 10분쯤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1/2017122101363.html>

(서울경제)= 『"종현 오빠, 곧 따라갈거야" 인도네시아 여성팬 자살 기도

허세민 기자 2017-12-21 11:04:57

멤버 종현(27·본명 김종현)의 죽음을 애도하던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 팬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샤이니 팬 데비는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영어와 한글로 “더는 견딜 수 없다. 엄마, 아빠, 종현 오빠, 곧 따라갈 거야. 나를 기다려줘”라고 썼다. 그는 이에 앞서 “부모님에 이어 아이 돌까지 잃은 이상 삶을 포기해야 할까”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지 케이팝 팬클럽 회원들에 따르면 그 직후 데비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19일 낮에야 의식을 회복한 데비는 자살을 기도한 것을 후회하며 자신을 걱정해 준 동료 팬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힌 뒤 트위터 계정을 폐쇄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밖에도 종현의 죽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하던 여성 팬이 탈진해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종현에 대한 비방성 게시글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는 이들이 생겨나자 현지 팬클럽 회원들은 전자정보거래법(ITE)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법적 다툼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현은 지난 18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이니 종현 죽음에…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팬 자살 기도」 등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강 희	강희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